

12 월의 사양관리

축산과학원



일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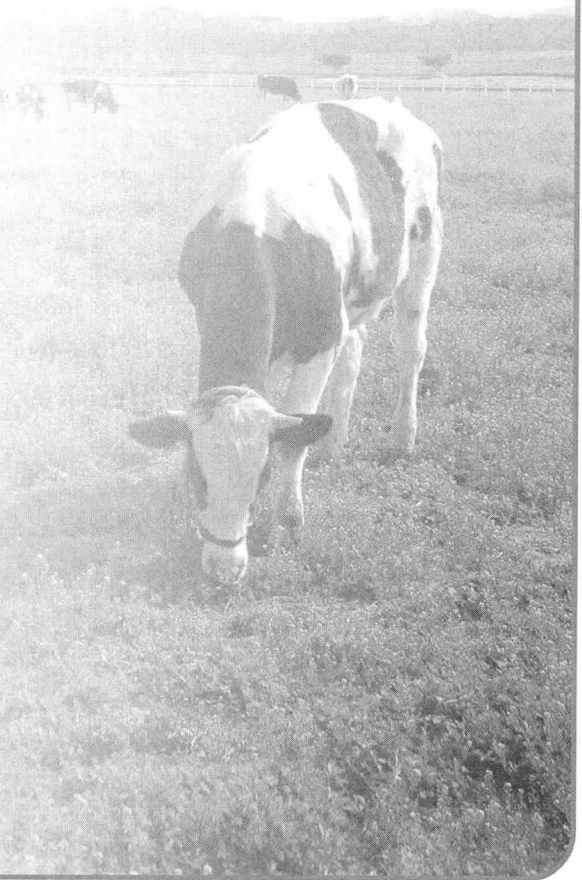
2007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난 일년간의 모든 목장기록을 정리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경영 개선을 위해 저능력우의 도태 및 고능력우 중심의 핵심축군 유지 등의 경영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을 세운다. 월동용 사일로의 관리가 나쁘면 2차 발효가 일어나 소화율과 기호성이 저하되므로 담근 먹이를 꺼낼 때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위에서부터 10~20cm 이상 두께로 파 먹이고 마무리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또는 보온덮개로 덮어준다. 또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소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실제온도 보다 훨씬

더 춥게 느끼므로 맞바람이 우사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윈치 커튼을 내려주거나 벧짚이나 건초 등으로 북서쪽을 막아두는 것이 좋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영하로 내려가는 시기이므로 착유실과 급수시설의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착유우가 착유실로 이동하는 통로나 축사바닥의 물이 얼어 있으면 미끄러져 탈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기를 제거하고 모래나 흙 등을 깔아 준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소에게 급여하는 물도 너무 차면 젖소의 체온을 떨어뜨려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여 사료낭비 및 호흡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온급수기나 지하수를 직접 활용하여 너무 찬물을 먹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겨울철 소를 둘러싼 외부적인 극한 환경으로 인하여 생산성 감소, 미끄러짐에 의한 탈골, 유두손상, 송아지 폐사 등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면 젖소의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나 이것은 열에너지로 체내에서 변환되어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증체나 생산성 증가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저온환경에서는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되어 사료섭취량과 소화관 운동성이 증가하여 반추위에서 하부장으로 사료통과 속도가 증가되어 소화율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추운 겨울철에는 사료를 5~10%정도는 더 증가시켜 주도록 한다. 그리고 젖소가 추울 때 채식량이 증가되는 것은 체온유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료의 소화기관 통과속도가 빨라져 사료의 소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젖소의 산유량과 유성분은 일반적으로 온도(0~25℃)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저온환경에서는 유방에 대한 국소적 작용으로 유방을 냉각시키고 유선세포의 온도를 저하시켜 세포기능이 억제되고 열 방출을 줄이기 위해 유선 혈류량이 감소되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소를 열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유선에 공급되어야 할 영양소, 특히 포도당이 부족하여 우유속의 유당합성량이 감소되어 유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겨울철에는 젖소의 관리가 대부분 축사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사내의 환기 및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분만예정우는 별도의 깨끗한 공간으로 이동하고 깔짚 등을 충분히 깔아주어 분만후 외기온도로 인해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번식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발정관찰인데, 겨울철은 날씨가

추워짐으로 해서 발정관찰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은 계절이다. 따라서 반드시 농가 실정에 맞는 발정관찰 보조기를 선택하여 관행적인 발정관찰 방법과 병행함으로써 발정 관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인공수정을 실시한 개체들에 대해서는 직장검사나 비임신진단키트 등을 이용하여 임신확인을 하여야 장기공태우를 방지할 수 있다. 공태우에 대해서는 발정을 인위적으로 유기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함으로써 가을철의 서늘한 계절에 송아지를 분만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방역 및 위생관리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보온에만 신경을 써다 보면 환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기 불량 시 축사 내 유해가스가 축적하게 되고 호흡 및 체표에 발산한 땀으로 습도가 높아져 호흡기 질병이 유발되게 된다. 따라서 찬바람을 막기 위해 북쪽에 방풍벽을 설치하고 보온보다는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여 호흡기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기온이 내려가면서 잠재해 있던 준임상형 유방염이 축사내의 불결한 공기와 높은 습도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또한 찬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유방접촉 등으로 임상형 유방염으로 발전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임상형 유방염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깔짚과 환기가 필요하다. 또한 동절기에 분만된 송아지는 호흡기와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초유 또는 분유를 먹는 송아지는 보온 및 환기 관리에 신경을 쓰고,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냉기와 문틈으로 들어오는 설피바람을 차단해 주도록 한다. 송아지 설사는 출생 후 10일 이내에 급성으로 많이 발생하며 감염률도 높고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균으로는 로타바이러스, 대장균, 살모넬라 등이다. 따라서 송아지 및 후보축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프로그램은 잘 숙지하였다가 실행한다.

- 1) 출생시
 -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송아지 설사증 백신접종
 - 클로스트리디움 균에 의한 장독혈증 독소이드 백신접종
 - 대장균 설사증 백신접종
- 2) 출생 2~3주
 - 헤모필러스 솜너스 1차 백신접종
 - 파스튜렐라 백신접종
- 3) 생후 2~6개월
 - IBR, BVD, PI3, BRSV 혼합백신 1차 (2~3개월령) 및 2차(3~4개월령) 접종
 - 헤모필러스 솜너스 2차 백신접종
- 4) 생후 8~14개월
 - IBR, BVD, PI3, BRSV 혼합백신 보강접종, 탄저·기종저 백신접종
 - 소유행열, 아까바네병 백신접종 ㉞

